# 암소비육 기술

한우 비육우 사양관리 기술은 거세우 위주로 연구되어 왔고, 아직까지 한우 쇠고기는 거세우가 대표되고 있다. 한우 암소의 도축물량은 약 50%를 차지하고 있다. 암소의 비육은 거세우에 비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양관리하기가 쉽지 않다. 암소는 나이, 체중, 산차 등의 개체별 요인 뿐 아니라 발정 및 성숙도 등의 추가적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.

1) 비육시기

한우 경산암소 비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비육시기일 것이다. 암소는 개체별 요인뿐 아니라 성숙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 한우 암소의 경우 생후 5세(생후 60개월령) 이전까지 성숙도 발생률은 5%이하 이지만, 7세 이후 성숙도 발생률이 50%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. 경산 암소의 비육시기는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4세 전후에 비육을 개시하여 5세 전후로 출하하거나, 번식능력이 우수한 암소는 비육보다 번식우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성숙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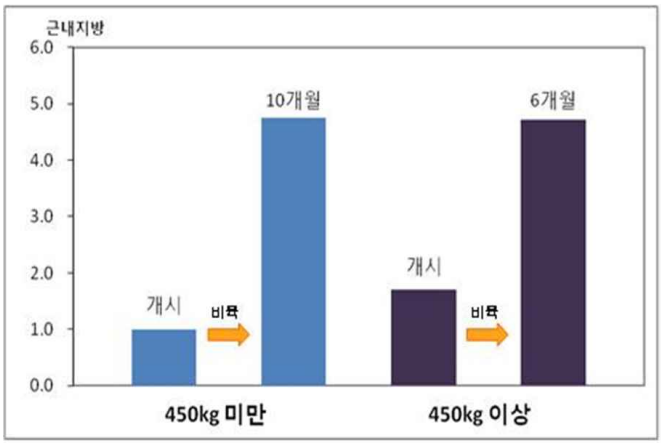
<표 1> 한우 암소 월령별 성숙도 발생율

| 구 분 | 조사두수 | 발생두수 | 발생율(%) |
|---|---|---|---|
| 3세 미만 | 239 | 2 | 0.84 |
| 5세 미만 | 460 | 21 | 4.57 |
| 7세 미만 | 337 | 85 | 25.22 |
| 8세 미만 | 240 | 133 | 55.42 |
| 8세 이상 | 435 | 342 | 78.62 |

2) 비육기간

현장에서 경산 암소의 비육시기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비육기간일 것이다. 비육 개시체중(BCS)에 따라 비육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. 현장에서 암소의 비육기간은 최대 1년을

넘기 어렵고, 최소 비육기간 내에서 출하하고자 한다. 한우 경산암소 비육 시 나이와 산차 보단 체중을 고려하여 비육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농가마다 번식우 사양관리 방법이 다양하여 개체별 비육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. 한우 경산암소의 체중 450kg를 기준으로 450kg 미만은 8~10개월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고, 450kg이상은 6~8개월 미만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다 <그림 1>. 비육 전 체중측정이 원활하지 않거나, 비육 두수가 작을 경우 비육기간을 8개월로 설정하여 사양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.



<그림1> 비육기간별 근내지방도 변화

3) 사양관리 및 출하시기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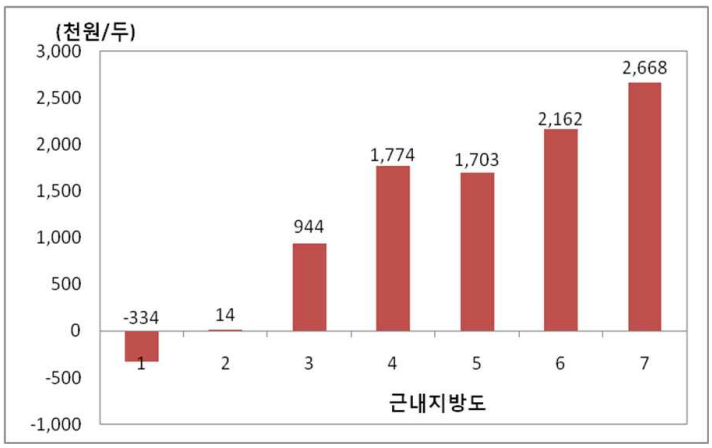
경산 암소의 비육기간을 비육개시-4개월까지를 비육전기로 설정하고, 사료섭취를 점차 늘려 비육우로 적응시키는 시기이다.

<표 2> 한우 경산암소 비육 개시체중별 사양관리 방법

| 항 목 (kg) | | 비육전기 | | | | 비육후기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비육월령 |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
| 개시 체중 | 450kg 미만 | 400.0 | 439.0 | 475.0 | 503.2 | 530.2 | 553.0 | 568.0 | 587.5 | 601.0 | 612.0 |
| | 450kg 이상 | 500.0 | 536.0 | 566.0 | 591.2 | 614.0 | 634.4 | 647.9 | 656.9 | - | - |
| 배합사료 | | 5~6 | 8 | 8 | 8 | 자유채식 | | | | | |
| 볏짚 | | 4 | 4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

배합사료 급여량은 비육 개시시 두당 4-5kg/일 수준에서 매주 0.5kg/일씩 증가시켜 최대 8kg/일까지만 급여하고 대신 조사료를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급여해야 한다. 비육후기(5개월~출하시)는 출하전 2~4개월간 배합사료를 자유채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조사료 또한 충분히 급여하는 것이 좋다. 배합사료는 암소비육용 사료를 이용하거나 거세우 비육 전용사료를 이용하면 된다.

비육전기(비육 4개월) 후 초음파 육질판정에 따라 출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. 이 때 초음파 육질판정이 2이하일 경우에는 이후 추가비육에서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출하 혹은 증체를 위해 1~2개월만 추가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고 3이상일 경우 개시체중에 따라 2~6개월 이상 추가 비육하는 것이 유리하다.




<그림2> 초음파육질 진단에 따른 소득 변화